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동(C) 구간 광복동(동) 관동
- (명칭 변경) 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인천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 허정무호 “무실점 北 철벽 깬다”

## 월드컵대표팀 내일 밤 8시 북한과 3차 예선전

무패행진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티켓을 확보한 허정무호가 북한을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8위 북한과 2010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을 치른다.

한국(10골3실·골득실+7)과 북한(4골·골득실+4)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나란히 3승2무(승점 11)로 최종예선 진출권을 따낸 터라 이번 경기는 조 선두를 결정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서 양 팀 모두 패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대라 총력전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역대 공식 전적(5승5무1패)과 FIFA랭킹(한국 45위)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세에 있지만 북한이 3차 예선을 치르며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무실점 행진을 펼치고 있는 터라 골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감독은 그동안 출전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무릎에 이상을 호소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왼발등 피로골절 관정을 받은 조원희(수원), 배탈 증세를 보인 설기현(풀럼) 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베스트 11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표팀은 북한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 애초 수비백(3-back)을 고려했지만 중앙수비



요원 조용형(제주)이 경교능적으로 빠지면서 포백(4-back)을 기본으로 4-3-3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코칭스태프는 승패의 의미가 없지만 흥에서 끌려가는 경기를 치를 수 없는 만큼 박주영(서울)을 꼭짓점으로 좌우에 이근호(대구)와 이영우(서울)를 배치하는 공격라인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형 미드필드 겸 새도 스트라이커는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이 맡고 더블 볼란테에 김남일(빛셀 고베)-김정우(상남) 조합이 처음 호흡을 맞춘다.

한편 북한은 정대세(가와사키)를 전방에 깊숙이 박아놓고 홍영조(베자니아 베오그라드)가 측면과 배후에서 2선 공격으로 한국의 수비진을 괴롭힐 전망이다.



‘내가 넣었어’

20일 스위스 바젤 상크트 아랍파크에서 열린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독일과 포르투갈과 8강전에서 독일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가 선제골을 넣은 후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 바스텐 ‘운명의 한판’ 히딩크

(네덜란드 감독) (러시아 감독)



### 내일 새벽 4강 길목 지략 대결 관심

같은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 마르코 판 바스텐(44)과 거스 히딩크(62)가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4강 길목에서 지략 대결을 벌인다.

판 바스텐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는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러시아와 22일 오전 3시 45분(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의 상크트 아랍파크에서 대회 8강전을 치른다.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는 조별리그에서 2006 독일월드컵 우승, 준우승국인 이탈리아(3-0 승)와 프랑스(4-1 승)를 차례로 완파하고, 주축들을 대거 쉬게 한 루마니아와 최종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깔끔하게 C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러시아는 스페인과 1차전에서 1-4로 패배한 뒤 지난 대회 챔피언 그리스를 1-0으로 누르고 3차전에서는 한 수 위 전력으로 평가받던 스웨덴을 2-0으로 꺾어 조 2위로 힘겹게 8강 대열에 합류했다.

네덜란드 축구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 판 바스텐 감독은 2004년 대표팀을 맡아 독일 월드컵 16강에서 포르투갈에 0-1로 패하며 접었던 메이저대회 우승 꿈을 다시 꾸고 있다.

이번 대회가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자신이 선수시절 활약했던 아약스 암스테르담의 사령탑에 오르게 돼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절실하다.

판 바스텐 감독은 선수시절인 1988년 이 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당시 결승 상대는 바로 구 소련(네덜란드 2-0 승)이었고, 판 바스텐은 해기골을 넣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뒤지지만 러시아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히딩크의 마법’을 믿기 때문이다.

히딩크 감독은 현역경력만 봐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지도자로서는 슬한 기적을 일궈냈다.

네덜란드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1996년 대회 8강에 올랐고,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는 4강까지 밟았던 그는 이후 세 차례 축구 변방의 대표팀을 이끌며 잇따라 메이저대회 본선에서 조별리그를 통과시키는 마법을 부렸다. 한국을 맡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고, 호주를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려 놓은 독일월드컵에서는 내친 김에 사상 첫 16강까지 이끌었다.

이번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러시아와 함께 8강 무대를 밟는다.

## 발라크 “호날두 집으로 가”

### 독일, 포르투갈 3-2로 누르고 4강 진출

‘전차군단’ 독일이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리던 포르투갈의 꿈을 깨고 4강에 진출해 12년만의 우승컵 탈환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스위스

바젤 상크트 아랍파크에서 치러진 대회 8강전에서 전반 22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가 선제골과 전반 26분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추가골, 후반 16분 미하엘 발라크의 결승골을 앞세워 전반 40분 누누 고메스와 후반

41분 엘데르 포스티가의 연속골이 터진 포르투갈을 3-2로 힘겹게 물리쳤다.

특히 선제골을 터트린 독일의 슈바인슈타이거는 두 차례 차출된 프리킥이 모두 동료의 헤딩골로 이어지면서 1골 2도움의 특급 활약으로 4강 진출의 견인차가 됐고, 발라크도 값진 두 경기 연속골로 이목집을 돋보였다. 이로써 1996년 대회에서 체코를 꺾고 마지막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독일은 26일 오전 3시 45분 크로아티아-터키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 제조 양태영 금메달 따면 ‘돈방석’

### 협회, 베이징올림픽서 금 포상금 2억5천만원으로 책정

평행봉 전문가 양태영(28)과 유원철(24·이상 포스코건설)이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으로 2억5천만 원을 받는다.

대한체조협회 관계자는 19일 “포스코건설 소속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아파트 한 채를 얻는 것과 같다”며 포상금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액수다. 그만큼 첫 금메달에 대한 체조인의 열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협회가 대표팀에게 쏟는 정성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최강 중국 체조대표팀과 올림픽 경기가 치러질 베이징 국가 실내체육관에서 1주일간 합동 훈련을 치르도록 주선한 데 이어 미국 체조대표 선발전(20~23일) 관전자로 1985년부터 24년째 체조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소속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1억 원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양

태영과 유원철의 사기가 더욱 오르게 됐다. 여기에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금메달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인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공언해 총 2억5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완성됐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액수다. 그만큼 첫 금메달에 대한 체조인의 열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협회가 대표팀에게 쏟는 정성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최강 중국 체조대표팀과 올림픽 경기가 치러질 베이징 국가 실내체육관에서 1주일간 합동 훈련을 치르도록 주선한 데 이어 미국 체조대표 선발전(20~23일) 관전자로 1985년부터 24년째 체조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소속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1억 원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양



21일(토)

▲유로2008축구 8강전(크로아티아 : 터키)(03 : 00-SBS)

▲2008 삼성 파브 프로야구(삼성 : SK)(16 : 30-KBS N SPORTS)(롯데 : LG)(16 : 50-XSPORTS)(두산 : KIA)(17 : 00-MBC ESPN)

22일(일)

▲유로2008축구 8강전(네덜란드 : 러시아)(03 : 35-SBS)

▲2008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 : LA다저스)(05 : 00-XSPORTS)  
▲2008 삼성 파브 프로야구(삼성 : SK)(16 : 30-KBS N SPORTS)(롯데 : LG)(16 : 50-XSPORTS)(두산 : KIA)(17 : 00-MBC ESPN)

▲2010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한국 : 북한)(19 : 50-MBC)

23일(월)

▲유로2008축구 8강전(스페인 : 이탈리아)(03 : 05-SBS)

## 승업 완벽 부활?

### 2군경기 160m, 150m짜리 홈런포



2군 경기에서 비거리 160m, 150m짜리 대형 홈런을 두 방이나 쏘아 올린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완벽한 부활을 앞두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요미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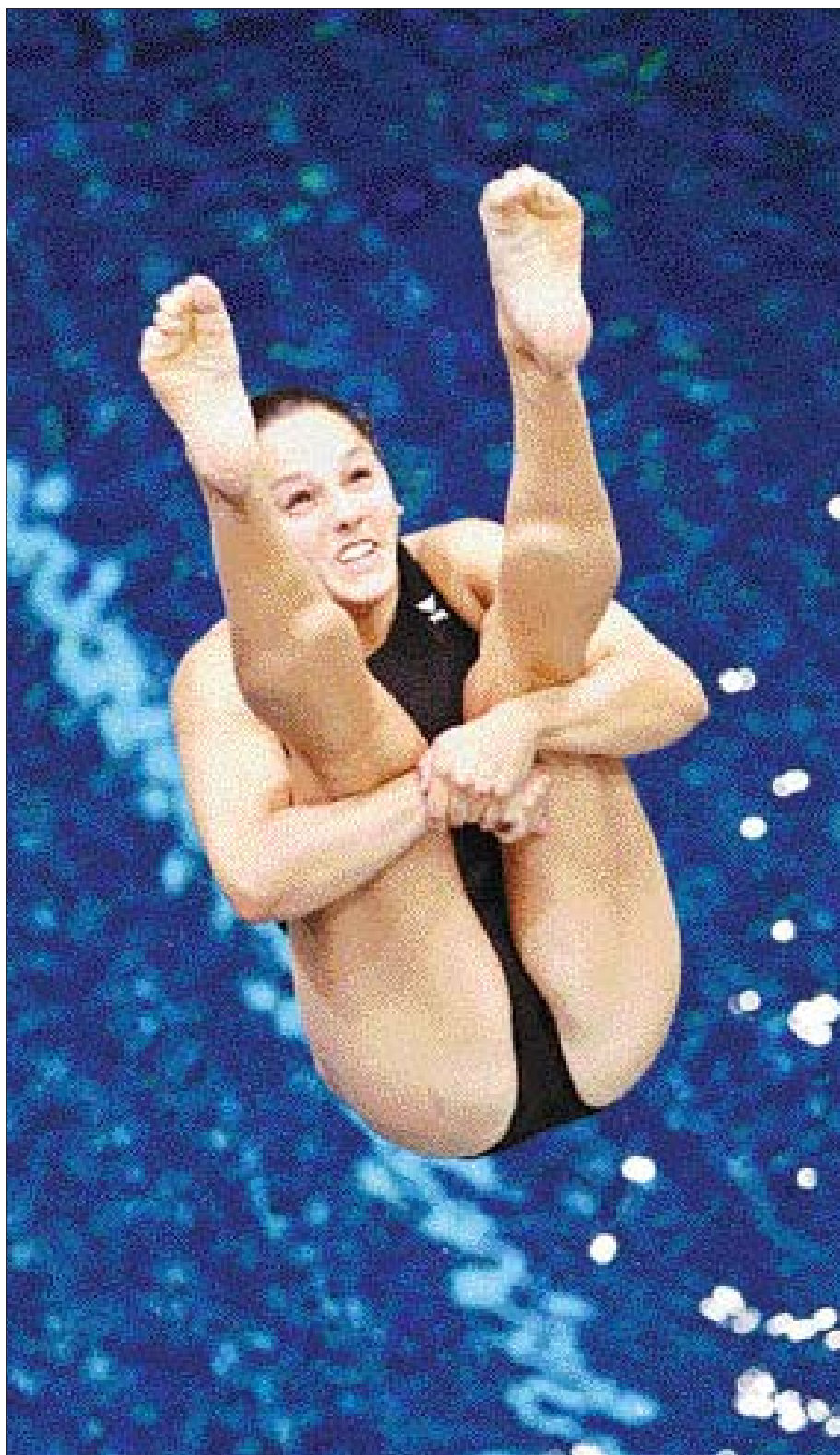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와 ‘산케이스포츠’는 20일 인터넷판에서 전날 지바현 가마가야 파이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니혼햄 2군과 경기에서 홈런 두 방을 때린 이승엽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4월14일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내려온 이승엽은 좀처럼 감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으나 홈런 두 방으로 66일 만에 다시 일본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이승엽이 4회 1사1루와 6회 1사1루에서 똑같이 우중간 방향으로 날린 홈런은 비거리가 무려 160m, 150m나 됐다.

요시무라 사다야키 요미우리 2군 감독은 “공을(정확하게) 맞는 순간이 한창 잘 때였을 때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이승엽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라 다쓰노리 감독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그러나 “컨디션은 정상치의 60% 밖에 안된다. 지금은 무엇이든 시련 중인 단계”라며 갖가지 방법으로 잃어버린 타격감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승엽이 타격감을 회복하더라도 당장 1군에 합류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군에서 뛰고 있는 주포 알렉스 라미레스를 필두로 투수 세스 그레이싱어, 마크 크론, 에드ريان 번사이드 등 외국인 선수 4명이 너무 잘하고 있어 2군으로 내칠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환상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10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 미국 수영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경기에서 크리스티나 루카스가 뛰어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